

## 계층을 통과하여 선별하기

### 요한 복음 1:1-5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18 절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리즈, “예수님의 강림” 을 시작합니다. 이 구절들은 프롤로그, 즉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페라의 서곡과 같습니다. 본문이 전체 복음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생명, 빛, 어둠, 진리, 은혜, 영광과 같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이 프롤로그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나갈 때 꼭 통과해서 보아야 하는 렌즈입니다. 본문은 아름답게 짜인 리드미컬한 시와 산문의 혼합인데, 많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된 초콜릿 케이크 (사진)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케이크의 풍미를 경험하려면 모든 층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더 많이 먹을수록 맛이 좋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미해야 할 것이 많지만 각 층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 프롤로그(슬라이드)의 chiasm을 저와 함께 살펴보십시오. chiasm은 독자 (또는 청중)가 내용을 기억하고 중심에 있는 것을 강조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 예수, 영원한 말씀이 창조에 활동적이심 (1-5 절)
  - 예수의 증인 (6-8절)
    - 참 빛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 (9-10절)
      -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 (11-13절)**
    -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14절)
  - 예수님의 증인 (15절)
- 예수, 하나님의 최상의 계시 (16-18 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 이 권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서론에도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주디와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층위들 (레이어)들 -역사, 고고학, 종교, 정치)를 발견하기 위해 갔습니다. 국가 이스라엘과 그 국민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 끝의 아카바 만에 있는 에일랏에서 최북단 헤르몬 산맥까지 렌트카를 타고 휴대폰에는 웨이즈(Waze) 앱을, 무릎에는 몇 권의 좋은 책들로 무장하고서 이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하나의 고고학 유적지를 고려할 때조차도 많은 층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므깃도입니다(그림). 고대 세계에서는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계곡 사이의 통로였습니다. 한 이집트 파라오는 "므깃도를 점령하는 것은 천 개의 성읍을 함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므깃도에서는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므깃도에는 밝혀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을 내려다보면 5단계의 문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600년 전에 지어진 가나안 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므깃도는 2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깃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매혹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 부를 통해 모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도착하신 분을 발견하기 위해 한 겹씩 벗겨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족보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과거로,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다섯 구절(3 슬라이드)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시죠.

슬라이드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슬라이드 2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슬라이드 3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말씀이, 창조하시고, 생명과, 빛이시며, 그리고 어두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연상하게 합니다. "태초에 ~ 계시니라"는 말씀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지속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은 이미 영원토록 존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던 모든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자체로 총들로 이루어진 케이크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영향의 흐름(2층)을 반영합니다: 즉 (1) 그리스 철학과 (2) 구약성경입니다.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 보죠. 그리스 스토아학파에게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비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였습니다. 이 합리적 원칙은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하여 삶에 일관성과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풍부한 연결은 구약성경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신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 33: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사 55:10-11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창 15:1

이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이사야 38:4)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마음, 즉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그분의 방법들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거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시 107:2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계시, 구원 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나고, 진리와 지혜가 드러나며, 사람들이 구출되고 치유되며, 나라들이 세워지거나 심판을 받습니다.

므깃도(골짜기가 있는 그림)를 이해하려면 과거 문명의 지층을 연구해야 하지만, 요한계시록 16장, 즉 아말겟돈 전쟁("므깃도의 언덕"을 의미)에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말씀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리스 철학과 구약성경에 있는 초기의 연관성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복음을 통해 계시된 살아 있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 모든 층위가 배경의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즉, 전경이 배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말씀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로고스"를 가장 참되고 총명한 의미로 채우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이십니다(히 1: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전치사 "with"는 "방향을 향하여" 또는 "관계 속에서"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공존하실 뿐만 아니라(서로 함께 현존하시며), 영원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는 언제나 하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분들과 함께 하는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 요 17:20-21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더욱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시며, 인격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구성요소를 알게 됩니다(슬라이드).

-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이상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계십니다.
-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 그들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 
- 말씀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요한은 말씀이 인간 안에 계시된 하나님 당신의 표현이라고 밝힙니다. 말씀은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이셨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1. 영원 전으로부터 : 선재(先在), 임재, 그리고 인격적 이심.

기원후 3세기(아리우스)부터 오늘날(여호와의 증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일반 신으로 암시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 테오스(Theos) 앞에는 정관사(the)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문법에서는 서술된 명사 앞에 정관사가 없다고 해서 불명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1장에 나오는 다른 예들로 6절, 12절, 13절, 18절이 있는데, 여기서 Theos는 정관사 없이 쓰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실, 1절에서 요한이 단어를 배열한 방식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말씀은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썼다면, 그분을 떠나서는 다른 신성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요한은 2절에서 1절을 반복하고 강화합니다 :

요 1: 2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의 복음의 모든 부분은 이 두 절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인도의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 음식, 와인, 음악, 춤이 어우러진 7일간의 행사였습니다.

주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랑의 가족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신랑이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았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부족은 신랑과 그의 가족에게 수치와 굴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십니다. 그녀는 이러한 공급 부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그녀는 아마도 신랑과 친척이거나 가까운 가족 친구일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초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각각 500-750리터를 담을 수 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물을 혼인 잔치의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주인은 외칩니다 "이것은 테레빈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역자 주 - 뚝은, 역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 와인은 최고의 와인입니다!"

예수께서는 포도 즙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포도주가 있으라"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여섯 개의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정화 의식의 물이 사람을 정화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 만 정화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성수에서 새 포도주로, 율법주의에서 생명으로, 종교 의식에서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아마도 로마 백부장으로 추정되는 관리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아들을 고쳐 주기 위해 자기 집으로 오라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는 멀리서 관리의 아들을 치료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사물을 존재 자체로 말씀하십니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에는 온 우주가 포함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외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계셨습니다 (슬라이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지으신, 창조된"이라는 단어의 반복은 이 말이 23번 나오는 창세기 1장에 연결됩니다.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말씀" 덕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적 대리인이셨습니다.

## **2. 창조 시: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

지난 15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한 우주 창조는 심각한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신성에서 무신론적 진화론으로의 이러한 움직임은 1966년 타임지의 악명 높은 표지 "신은 죽었는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림)

흥미롭게도, 그때 이후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슬라이드).

1. 우주는 분명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다(우주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무한한 기간에 걸쳐 진화한 것이 아니다.
2. 전체 우주는 상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물리학): 그것은 우연히 진화한 것이 아니다;
3. 생명체가 아닌 것에서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생물학): 세포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단순한 세포가 결합하여 복잡한 분자를 형성한다는 다윈의 생각은 이제 역사 속으로 묻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진화론이 아직도 BC 학교의 7학년과 11학년에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은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신론은 죽었는가?"입니다. (신의 귀환 가설: 신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 스티븐 마이어 박사).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히브리 지혜 문학도 배경이 됩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의 명공이 되었으며...(잠언 8:27상, 29하, 30상)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의 활동을 통해 그분의 모든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고 일관되게 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16; cf. 고전 8:6; 히 1:2; 계 3:14).

예수의 임재와 선택의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조차도 말이죠. 당신은 그의 숨씨 (만드신 바 -에베소서 2:10)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빛 안에서 걷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과 의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당신에게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께서 창조를 통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생명과 빛입니다.

예수는 생명을 구체화하십니다.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는 생명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의 생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25).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로서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어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분에 의해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 10:10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빛을 찾나요? 지혜, 종교, 철학, 도덕적 가르침, 자조(self-help) 가이드입니까?

요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창세기 1:3)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창세기 1:2) 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북극의 가장 어두운 어둠 속에서 북극광 - 오로라 이 가장 밝게 빛 납니다(그림).

예수는 창조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의 빛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즉 영적 무지와 눈멀음, 타락하고 뒤틀린 생각, 사탄이 지배 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아무리 어두워도(그 세상, 아무리 비뚤어진 세상이라도) 예수의 빛을 극복(소멸)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왜? 생명과 빛은 모두 예수 자신 안에 그 기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죽으시지만 죄와 죽음과 악한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는 압도적인 승리자이십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도 그분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어둠과 빛은 같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예수의 빛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 3. 역사 속에서: 인류의 생명과 빛

이것은 메트로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빌 2:15), 오로라와 같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른 아침에 종교생활의 중심지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분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가 가르치자, 종교 지도자들은 한 여자를 그에게 데려옵니다. 그 여자는 간음을 범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예수, 뭐라고 하시겠소?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녀와 같은 여성을 돌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정죄할 이유를 원할 뿐입니다.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된 한 무리의 남자들 한가운데서 더할 나위 없이 취약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는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 구절을 썼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몸을 굽히고 계속해서 땅에 글을 씁니다.

그들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나갑니다. 예수는 그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요 8:10-11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자가 그를 따른다면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인 그분은 - 하나님의 마음, 그의 길 즉 그의 선하심, 사랑,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를 보십시오. 그를 통해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독립적인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말씀, 우리의 창조주, 생명,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 의지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모험을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육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16-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 기도

묵상 질문 :

1. 예수께서는 그분의 강력한 말씀으로 사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진리와 지혜를 계시하시며, 구원과 치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위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기도합니까?
2.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친밀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알도록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